

다니엘서 - 제1편

올래와 히데겔

Jeff Pippenger

2023-11-21

성직자들과 백성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가리키시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15.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해될 수 없는 신비라는 주장은 그 책의 제목 자체에 의해 반박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하심이라. ...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선지자는 말한다: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 읽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복이 없다. '또 듣는 자들' — 예언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이 부류에게도 복은 없다. '또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 많은 이들이 계시록에 담긴 경고와 교훈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한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다. 예언의 내용을 조롱하고 여기 엄숙히 주어진 상징들을 비웃으며,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라고 감히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은 드러난 신비요, 열린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마음을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이끌며, 이 둘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한다. 대쟁투, 340쪽.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는 마음을 다니엘의 예언으로 이끈다.” 어떤 이들은 다니엘서 안에서만 예언을 본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진리의 두 줄기를 제시하며, 그의 예언을 대표하는 진리는 그의 책 마지막 여섯 장에 있다. 첫 여섯 장은 예시적 예언을 제시하는데, 이는 대체로 여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다니엘서의 첫 여섯 장을 살펴보기 전에, 왜 다니엘서의 마지막 여섯 장에는 사실상 두 가지 예언만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화이트 자매는 시날의 두 큰 강을 언급함으로써 그 두 예언을 지적한다. 그녀가 제시하는 상징을 받아들이면, 다니엘서 마지막 여섯 장에서 두 개, 오직 두 개의 예언만을 보게 하는 열쇠를 얻게 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스날의 큰 강들인 올래 강가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증언, 112.

8장의 환상은 올라이 강가에서 주어졌다.

벨사살 왕 통치 셋째 해에, 처음에 내게 보였던 것 후에, 나 곧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니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궁전에 있었고, 또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내가 올라이 강가에 있었다. 다니엘 8:1, 2.

우리가 'Testimonies to Ministers'에서 화이트 자매가 '올라이와 히데겔'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스날의 큰 강들'이라 부른 단락을 가져와 검토했을 때, 우리는 화이트 자매의 저술 중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석 가운데 하나인 그 단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사역 역사에서 전례 없을 만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다니엘서 8장 첫 두 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흔히 간과되는 한 사실에 대한 두 가지 내적 증거를 제공한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내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 "처음에 내게 보였던 후에"라고 덧붙인다. 이 구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동일하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탄을 대신해 하늘의 빛을 맡은 자가 되었기에, 모든 선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예언의 빛을 가져온 이였다. 이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원칙이 가브리엘의 인도를 받았음을 뜻한다. 다니엘이 그것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8장 1절에서 그는 중요한 예언적 관찰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구절 안에서 그 중요한 예언적 관찰에 대한 두 증거를 제시한다. 다니엘이 1절에 기록한 것은, 그가 올라이 강가에서 받은 환상 이전에 이미 하나의 환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올라이 강가에서의 환상은 벨사살 제3년에 임했다. 올라이 강의 환상보다 앞선 그 환상은 벨사살 제1년에 임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보았다. 이에 그는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의 개요를 말하였다. 다니엘 7:1.

8장 1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벨사살 왕 원년에도 환상을 보았다고 밝히는데, 이는 그가 "처음에 내게 나타난 것 후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올라이 강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 이후에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서로 병행하는 두 환상 중 첫 번째 이후에 나타난 것인가? 어느 쪽이든 맞다. 올라이 강의 환상은 7장의 환상과 같은 환상이다. 가브리엘은 예언의 원리인 "반복과 확대"를 사용하고, 동시에 "두 사람의 증언으로 일이 확정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두 환상 모두 성경 예언의 왕국들을 다룬다.

7장의 환상은 그 왕국들을 맹수로 묘사하여, 그들의 정치적 권세의 맥락에서 강조하고 제시한다. 8장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소 봉사의 상징들을 사용하여 같은 왕국들을 묘사하지만, 그 상징들 각각은 거짓 예배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다니엘 8장은 7장의 환상과 같은 왕국들을 묘사하되, 그 왕국들을 종교적 맥락에 놓는다.

다니엘서 8장의 올라이 강의 환상은 7장의 환상을 반복하고 확장한다. 7장은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의 정치적 측면을, 8장은 성경 예언에 등장하는 왕국들의 종교적 측면을 식별한다. 이 점을 인식하면 7장과 8장이 같은 환상임을 이해할 수 있다. 9장은 가브리엘이 와서 8장의 환상에 있는 시간의 요소를 설명해 주는 곳이다. 그러므로 올라이 강의 환상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포괄한다. 그런 다음 10장에서 히데겔 강이

소개된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나타났으니, 그 일은 참되었으나 정해진 기한은 길었더라.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더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이레 동안 애통하였느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나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아니하였으니 온전한 세 이레가 차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더라. 다니엘 10:1-4.

히데겔 강의 환상은 북방 왕의 예언적 역사를 소개한다. 그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 분열되는 데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역사에서의 부침을 보여 주는데,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옛 왕국의 해체 이후 남게 되는 두 적대자는 문자적인 남방 왕과 문자적인 북방 왕뿐이다. 결국 그 역사 서술은 교황권의 역사에 이르며, 교황권은 영적 북방 왕이 된다. 그리고 열한째 장의 끝에서 그가 종말에 이르면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닫힌다. 간단히 말해, 올라이 강의 환상은 하나님의 성소와 군대에 대한 내적 환상이고, 히데겔 강의 환상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외적 환상이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일곱 인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많은 목사들은 계시록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연구해도 유익이 없는 책이라고 말한다. 그 안에 표상과 상징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봉합된 책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 책에 붙여진 이름 자체인 '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가정을 부정한다. 계시록은 봉합된 책이지만, 동시에 열린 책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가르침은 신비롭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이 책에는 다니엘서와 동일한 예언의 맥락이 이어진다. 어떤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는데, 이는 그 예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주께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신다." Manuscript Releases, 제8권, 413.

다니엘서에 제시된 동일한 내부적·외부적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루어진다. 이 두 환상에서 나오는 예언적 빛 외에도, 윌리엄 밀러가 채택하고 이후 Future for America가 이어받은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한 확증도 있다. 올바르게 고찰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스스로 제시하는 예언 해석의 원칙들을 확증하는 데 있어 그야말로 금광과도 같다.

올라이는 내적 주제이며 히데겔은 외적 주제인데, 이 둘은 또한 '끝의 때'에 봉인이 풀리게 될 두 예언을 나타낸다. 올라이는 1798년 '끝의 때'에 봉인이 풀렸고, 히데겔은 1989년 '끝의 때'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교황권과 미국에 의해 옛 소련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휩쓸렸을 때 봉인이 풀렸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면, 두 환상이 실제로는 하나의 환상임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의 예언적 역사가 같은 예언적 역사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두 환상은 첫째 천사의 과거 운동에서 주께서 사용하신 수단이 되며, 현재와 미래의 셋째 천사의 운동에서 주께서 사용하실 수단이 되어,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에

제시된 시험의 과정을 산출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 봉함되었느니라. 많은 이들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가운데는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으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1989년에 히데겔의 봉인이 풀린 한 예로, 영감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나 끝을 맺는다.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보완이 있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 중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5.

올라이와 히데겔은 모두 말세와 관련되지만, 재림주의는 1798년이 다니엘의 '끝의 때'이며 그의 책이 봉인이 풀릴 때였다는 것만 인정해 왔다. 그러나 '말세와 관련된' 예언의 부분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인데, 그 절들은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미가엘이 일어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심판의 환상은 1798년, 곧 '끝의 때'까지 봉함되어 있었다. 봉인이 풀린 올래 환상으로 주어진 빛은 심판의 종결이 아니라 조사심판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었다. 히데겔 환상과 함께 봉인 해제된 빛은 조사심판의 종결을 지적하며, 또한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날들과 관련된 예언의 부분'을 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

1798년에 봉함이 풀린 것은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렸다. 1989년에 봉함이 풀린 것은 조사 심판의 종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은 다니엘서에서 쉽게 보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찾으려 할 때에만 그렇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이 기록된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문자적 바벨론과 문자적 이스라엘 사이의 문자적 전쟁으로 시작하며, 문자적 바벨론이 승리한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 통치 제삼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는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다. 다니엘 1:1, 2.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북방의 왕"으로 상징되는 영적 바빌론과 "영화로운 거룩한 산"으로 대표되는 영적 이스라엘 사이의 영적 전쟁이 끝나고,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빌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그가 바다와 바다 사이, 영화로운 거룩한 산에 자기 궁전의 장막을 세울 것이나, 마침내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일찍이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다니엘서 11:45; 12:1.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이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쪽.

둘이면서 하나인 두 책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적 가르침의 걸작이다. 나는 가브리엘이 다니엘과 요한에게 전한 것이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음을 잘 알고 이렇게 쓴다. 나의 요지는 가브리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려 하기만 한다면 두 책 안에 제시되도록 알파와 오메가께서 설계하신 성경 해석의 예언적 규칙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 주는, 두 책 속 증거들의 심오한 계시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나의 목적과 의도가 올라이와 히데켈 강의 두 예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의 목적과 의도는 다니엘서의 첫 여섯 장에 있는 예언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어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하게 구성된 책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이 책들은 예언적 메시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람이 예언을 알고 또 그 예언을 주신 분을 알기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바로 그 규칙들까지도 밝혀 줍니다.

이 책들이 지닌 심오함의 또 다른 예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다니엘이 제시한 것이다. '일곱 때'의 예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첫째 천사의 밀러주의 운동에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셋째 천사 운동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림돌'이었고 또 그러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걸림돌'이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일곱 때'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지만, 보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된다.

문법적으로는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숨기는 일은 심오한 성취이며, 그것은 그 어떤 인간이 쓴 미스터리 소설에도 담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걸작이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훤히 보일 만큼 분명히 거기에 있지만, 넘어지기를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눈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음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곧 1957년 Questions on Doctrine가 출판된 이래 적어도 그때부터 재림주의 내부에는 가톨릭적 가르침이 존재해 왔고, 그것이 Future for America의 현재 진리 운동 안에서도 그 불의한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사상의 요지는, 성육신 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물려받은 육체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르침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이것을 가톨릭적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육체만큼 순결했다는 전제는, 가톨릭 교회가 이른바 '무염시태'라는 가르침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사탄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 이교적 가르침인 '무염시태'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하위 본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다시 말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타락 이전의 아담의 죄 없는 본성을 지니셨다고 가르친다. 또한 마리아 자신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타락하지 않은 육적 본성을 기적으로 부여받아,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그녀의 완전한 육체 안에 성육신시키실 수 있도록 완전한 그릇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물론, 예수의 육신에 관해 똑같은 결론을 지지하는 재림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관련된 어떤 기적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같은 가톨릭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화이트 자매와 성경의 구절들을 억지로 왜곡한다. 왜 내가 방금 다니엘서 논의에서 벗어나 결길로 새었을까? 그 이유를 말하겠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기적적인 구조와 설계는 인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성경에 온전히 나타나 있다. 그 안의 말씀은 신적이며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창조 능력을 담고 있다. 그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이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다. 이 조합에서 인간적인 측면은 타락한 인간들로 대표된다. 성경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결합이며, 예언자들도 아담의 모든 자손이 그러했듯이 죄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4천 년의 타락을 거친 뒤의, 마리아에게서 난 육신을 취하셨다. 만약 그분이 실제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낮은 육체적 본성을 취하셨다면, 모든 성경 저자들도 죄가 없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다니엘서의 '일곱 때'가 '눈앞에 버젓이 숨겨진' 채가 된 것은,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 때문일 뿐 아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일이다. 타락한 인간들이 다니엘서를 두 차례나 손댔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섭리적 감독 없이는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다니엘서 안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눈앞에 드러나 보이도록 숨겨 놓은 방식을 보여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첫째 천사의 운동에 있는 자들과 셋째 천사의 운동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시험의 '걸림돌'이 되도록 미리 아시고, 심지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스날의 큰 강들인 올래 강가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목회자에게 보내는 증언, 112.